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0월 11일(주일) 제1314호



사진은 지난해 일본어예배 한일 청소년 연합수련회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

“기본에 충실한 일본어예배부 되겠습니다” 11일 오후 2시 서빙고 경찬홀에서 기념예배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일본어예배부에서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10월 11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드린다.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는 김재일 장로 대표기도, 축사(유병진 장로, 정진호 장로), 테너 배재철 집사 특송, 이재훈 담임 목사 설교, 30주년 세리모니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본어예배부는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의 선봉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CGNTV, 두란노 Japan, 일본비전교회, 러브 소나타 전도집회, 일본 아웃리치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예배부는 1989년 동부이촌동 주재 일

본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모임이 모태다. 1990년 주재원 아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글강좌’를 개설했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토요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그해 10월 일본어예배부가 정식 창립됐다. 현재 약 200여 명이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철희 목사(일본어예배부 담당)는 “일본어예배부 한 분 한 분이 기본으로 돌아가 예배 중심의 일본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일본어예배부는 일본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철희 목사와의 일문일답.

일본어예배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일본어예배부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감개무량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일본어예배부는 온누리교회의 일본 선교 관련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랑을 흘러 보내주는 것처럼 일본어예배부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이 일본어예배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이 정지되거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상황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기본에 더욱 충실한 일본어예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역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어예배부의 사역방향은 한마디로 ‘Back to Basics(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저는 선교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의 기본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 바로서는 것입니다.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어예배부 소속 성도 한 분 한 분이 원점으로 돌아가 예배 중심의 일본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선진국이지만, 교회는 한국보다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문화 차이, 겉치레한 역사적 관계 등으로 인해 한국 성도님들이 일본과 일본 선교에 부정적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일본인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더 많은 일본 선교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르밧 프로젝트’ 쌀 배송 시작

차세대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본격 실시

사르밧 프로젝트 쌀 배송이 시작됐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농어촌교회와 지역사회에서 구입한 쌀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캠페인이다. 10월 11일부터 협력 농어촌교회와 지역농가, 협동조합에서 쌀을 배송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는 온누리교회 2,123개 순이 헌금을 했고, 지원대상자 1,043명을 선정했다.

가정신앙문화를 세우기 위한 차세대 사역본부의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52일 느헤미야 성벽 쌓기 활동 패키지(이하 느헤미야 활동 패키지)’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다.

느헤미야 활동 패키지는 지난 9월 26일과 27일 각 캠퍼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배포했다. 느헤미야 활동패키지는 52일 동안 신앙의 성벽을 쌓는 활동 패키지를 비롯해서 성벽 과자, 추수감사 갑티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영선 기자, 홍하영 기자

‘2020 엔젤트리’ 사연 25일까지 접수

아직 2020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하지 못한 성도들은 서둘러야 한다. 10월 25일이면 2020 엔젤트리 사연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이다.

엔젤트리를 통해 주변 이웃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할 수 있다. 엔젤트리 사연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사연, 선물과 엔젤트리 사연을 신청한 성도의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성도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을 응원하고 싶은 이웃들의 사연을 신청해도 된다. 복지기관이나 타 교회 성도가 사연을 접수할 때에는 사회선교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엔젤트리는 매년 연말 이웃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접수된 사연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선물을 배송한다. 문의: 02-3215-3436, 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유교적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유교가 종교나 학문이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국가의 통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논어에서 “공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괴력난신, 즉 초자연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언명을 통해 유교가 무신론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령 신앙적 요소가 유교의 충효사상과 만나 조상의 영에 제사 드리는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 것으로 본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제도에 유학을 시험과목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교육과 통치이념을 유교적 세계관으로 통일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근세 500년을 지속한 조선왕조는 유교적인 국가관과 통치이념 위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세를 지배한 전통적인 세계관은 유교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세계관에 혼합되어 있는 유교적 요소를 기독교 세계관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유교의 형이상학(만물의 기원이나 존재의 근원을 다루는 학문)은 모든 것의 근원 혹은 우주의 시작을 ‘無極

而太極(무극이태극)’ 무극(끝없음) 혹은 태극(너무 커서 끝을 알 수 없음)으로 설명한다. 태극기에도 나오는 태극은 움직이거나(動) 멈추면서(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생성한다. 성리학에서는 태극을 만물의 근원 혹은 근본원리로 생각하여 이(理, principle)로, 여기서 생겨난 자연만물을 기(氣, master, 우주를 이루는 원질)로 본다. 유교의 우주론은 태극의 원리에 따라 기의 변화로 우주가 생성 되었다고 보는 기의 진화론이다. 태극 외에는 아무 물질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본다. 생명도 이런 음양의 조화로 하늘(비인격적)에 의해 생성되는데 하늘은 理, 사람은 氣가 된다. 왕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도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관계가 성립된다.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을 순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유교문화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교에서는 理에 의한 氣의 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 혹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理에 의한 氣의 다스림이 원활할 때 관계가 안정된다. 즉 권위에 순종하고 도덕(삼강오륜)과 법질서도 잘 지키면 순리적이고 평화로운 세상, 그에 어긋나면 역리적이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내면세계에는 4단7정(四端七情)이 있다. 4단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4가지 마음인 인의예지(仁義禮智)로, 인은 측은지심(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의는 수오지심(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예는 사양지심(사양하는 마음), 지는 시비지심(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다. 7정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慾)으로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하는 감정들을 나타낸다. 개인의 마음은 理에서 유래한 4단(이성)에 의해 氣에서 유래한 7정(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간 개인의 내면세계의 질서, 인간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문제 등 모든 문제에 理와 氣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인 4단을 밝히 드러내어 자신을 닦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교육의 방법론은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즉 사물을 잘 살펴서, 쌓은 지식을 넓히고, 뜻을 진실하게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의 몸을 수련하고, 가정을 다스린 후, 나라를 잘 다스려,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먼저 수련한 후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군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유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을 사생관(死生觀)이라 하는데 죽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모든 일에서 끝을 먼저 생각하는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사후세계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지만, 서양의 인본주의처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손을

통해 자신의 삶이 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가문의 사회적 평판 때문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손의 번영을 위해 그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조상의 묘자리도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을 찾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유교적 세계관은 국가의 통치와 교육철학을 장악하여 삶의 모든 방면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세계관을 제공한다. 유교가 제공하는 철학적 이념이나 윤리적 지향은 훌륭하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개개인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을 제시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임을 간과하였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부딪칠 돌에 부딪친 것이다”(롬 9:30-32)는 말씀처럼, 유교도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자력종교에는 항상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억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마련임을 자신의 내부 정보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의를 얻는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좋은 말씀을 모두 모아둔다고 진리는 아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길에서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은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이라 해도 진리가 아니다.

묵상: 기독교인인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적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성장배경을 이해하면, 사랑이 더 깊어진다

오랫동안 상담했던 한 자매이야기다. 그 자매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이다. 그것도 늦게 얻은 고명딸이라 부모가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위로 셋 있는 오빠들에게도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남편은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다. 어려서부터 장남 노릇을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다. 그러나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해주는 최고의 기술자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자매는 상담 내내 남편이 자신을 속여 결혼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잔소리가 많으며 남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해도 부부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자매에게 접근방법을 바꿔보라고 제안했다.

나는 자매에게 석 달만 꼭 참고 남편이 언제 들어오든지 파곤하고 풍성한 밥상을 대접하라고 제안했다. 다행히 자매는 내 조언을 귀담

아 듣고 부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대접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때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라고 통명스레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매는 늘 웃는 낯으로 “당신 오늘 하루 중 일 힘들었을 텐데 맛있게 드세요”라며 따뜻한 말들을 전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를 풀기 시작했다.

남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감사인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신 혹시 생활비 모자라지 않아?”라고 묻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며 자매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철부지 응석반이로 자라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픈 거였어”라고 대답했다. 남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늘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다. 가난한 형편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차별을 심하게 당했다. 새어머니는 공장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온 의붓아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혼자 많이 울었다고 한다. 중학교도 간신히 나와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도 참 많았다고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자매는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다니, 당신 참 존경스러워요.”

아내의 따뜻한 말에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라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부부관

계가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연애할 때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혼하면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 되어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워 줄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자랐다.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의 성장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부라면 서로에게 둘도 없는 최고의 배필이자 선물이 될 것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흐름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변화되어 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또한 하나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엄청난 위기 속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변화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분의 이름뿐입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고, 의지한다면 위기가 지났을 때 교회는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더욱 겸허히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위기를 뚫고 새롭게 변화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벽히 침몰시킬 수 있는 폭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격히 변하고, 교회를 공격할 지라도 교회는 극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힘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그 힘의 대결에서 세속적인 권세를 가진 이들이 전혀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패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변져 가는 영향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힘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부터 건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하여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장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종교, 정치,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에는 놀라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평범한 이들이 설교를 전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것에 놀랐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취한 자들은 진짜 놀라야 할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을 감춥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사도들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습니 다. 복음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복음의 빛은 결코 감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12절).

우리가 겪는 위기들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최종적인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위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것은 사람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위기 앞에 날마다 서 있었고, 그 위기 앞에서 돌이키고,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 다. 교회는 위기와 싸우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궁극적인 위기 앞에서 살아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을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다원주의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말씀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와 사상과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용을 최고의 진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답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지적에 나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부인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문화적 해석으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적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질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와 연결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을 배격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는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직면한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담긴 능력, 그 이름에 담긴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최초의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박해 이후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끔찍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암살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 다. 지금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세 교회처럼 교회와 세상 권력이 정치적으로 하나 되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8~20절).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역에 협조해야 하고,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틈타 세속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모이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인 것처럼 치부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요, 무시와 멸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성경적 신학으로 잘 정리한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교육자,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영역주권이론’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합니다. 각각의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여러 영역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주셨습니 다. 그런데 진리를 왜곡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모든 영역의 매개체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양극단의 관점이 아니라 제3의 영역주권을 설명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역주권이론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의 개념을 기독교 학교에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립대학들이 존재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기독교 대학을 추진했고 결국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영역주권이론은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연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14면에 계속〉

그 섬에 가면 전도자가 있다

금오도 여천동교회와 황금교회 조후연 전도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금오도는 짙은 코발트블루색 바다와 그림 같은 해안 절벽 길을 걸으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비렁길(금오도 트레킹 코스)이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섬이다. 그 섬에 가면 아주 특별한 전도자가 있다. 금오도 여천동교회와 황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후연 전도사(56세)가 그 주인공이다.

조후연 전도사의 첫인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저히 험하고 외로운 섬에서 목회를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곤조곤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목회에 대한 사명은 강단 있고 올곧았다. 그 아름다운 섬 금오도를 지키고 있는 조후연 전도사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을 만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힘을 얻었다고 한다. 그 현장에 다녀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금오도 여천동교회 앞에서 조후연 전도사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진 집사, 장행주 집사, 조후연 전도사, 윤철현 집사, 박진호 팀장.

“마을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6일, 조후연 전도사를 만나기 위해 금오도로 향했다. 그곳에 반가운 얼굴들이 먼저 도착해있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특별팀을 꾸려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금오도 여천동교회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박진호 집사(서빙고 농어촌선교팀장), 김상진 집사(수원 온누리교회), 윤철현 집사(태능 아가페교회), 장행주 집사(수원 명성제일교회)가 특별팀 멤버다.

여수EXPO역에 내려서 돌산도 신기항까지 이동했다. 그곳에서 금오도행 배에 올라탔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여수 바다를 스쳐지나가길 20여분, 드디어 금오도 여천항 선착장에 도착했다. 오늘의 목적지인 여천동교회는 여천항 선착장 바로 옆 언덕배기에 수줍게 자리하고 있다. 여천동교회 예배당 창문으로 금오도 바다를 바라보았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풍광이었다. 그 아름다운 풍광을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회 사정은 참으로 열악하다.

**“저는 아무 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조후연 전도사의 감격 그리고 눈물**

조후연 전도사는 올해 56세다. 2018년부터 금오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고생을 참 많이 한 평범한 어머니였다.

“32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여자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학 졸업을 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주의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공부를 하던 중에 지인 소개로 금오도 여천동교회를 알게 되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는 이 하나 없는 섬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주저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후연 전도사의 대답이 의외였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전혀 꺼려지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마음을 비운 탓 아닐까요(웃음).”

그녀가 처음 부임할 당시 여천동교회는 성도 3명, 황금교회는 80세 넘는 노부부만 남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금오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한 번도 물로 나간 적이 없는 주민들도 있고요. 금오도에서 처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말 거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며 면박당하는 일도 참 많았고요. 지금은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워낙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지금 믿지 않으면 늦는데...’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열매가 있었다.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늘어서 지금은 여천동교회 성도 10명, 황금교회는 성도가 6명으로 늘었다.

금오도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

다. 코로나19 이후 성도 절반가량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진 것 같아 허탈함이 컸지만 그래도 조후연 전도사는 절망하지 않았다. 또 전도하면 되기 때문이다. 조후연 전도사를 정작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교회에 엄청나게 핀 곰팡이였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섬에서 사는 것이요? 생전 물으로 나가본 적 없는 섬 토박이 주민들의 배척이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손사래부터 치는 어르신들 전도하는 것이요? 그런 일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에 핀 곰팡이입니다.”

교회에 곰팡이가 얼마나 많이 피었으면 저렇게까지 힘들다고 할까? 금오도 여천동교회와 황금교회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회를 둘러싼 담장과 예배당 외벽이 때와 이끼로 인해 온통 회색빛이다. 예배당과 사택 내부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곰팡이가 가득 핀다. 곰팡임과 쿼퀴한 곰팡이 냄새로 인해서 없는 병이 생길 지경이다.

“비만 왔다 하면 바닥이고 벽이고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곰팡이가 생길 때마다 닦고, 치우고, 벽지도 다시 바릅니다. 페인트칠도 해보고요. 그런데 딱 그때뿐입니다. 비만 오면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특히 올해 여름에는 사방에 핀 곰팡이 때문에 잠을 잘 곳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노후된 시설과 곰팡이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조후연 전도사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준 이들이 바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난 8월 3일 그날도 곰팡이 때문에 벽에 타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라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필요한 것을 묻기에 대답은 했지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조후연 전도사와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장 급한 냉장고와 세탁기, 온수기를 기증했다. 그리고 조후연 전도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곰팡이 문제와 결로, 교회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특별팀을 꾸렸다. 그렇게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교회 및 사택 내외부 벽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인원도 4명밖에 안 되고 빠듯한 일정인지라 잠시도 쉬지 않고 보수작업에 몰두했다. 결코 생색내기 공사가 아니었다. 결로와 곰팡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하기 위해서 예배당 벽에 단열재, 다루기(각재), 석고보드, 목판을 대는 작업을 실시했다.

구슬땀 흘리는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원들을 보면서 조후연 전도사가 큰 감동을 받았다. 너무 감사해서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사흘 내내 새벽 4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꼬박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사명감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

공사는 주일에도 계속됐다. 여천동교회 주일예배를 드리자마자 나하 할 것 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막바지 작업에 몰두했다. 정해진 배 시간에 맞춰서 모든 작업을 끝내려면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아무 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을 얻어서 금오도 주민들이 모두 예수 믿도록,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후원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여수 금오도 이야기

금오도(金鰲島)는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속한 섬이다. 섬의 모양이 큰 자라를 닮았다 하여 ‘자라 오(鰲)’자를 써 금오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큰 섬이다. 여수에서는 돌산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주변 섬에 비해 넓은 면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유하고 있다. 오래전 나라에서 일반인의 출입과 별채를 금해 아껴두었던 곳이다. '명성황후가 사랑한 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금오도가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비렁길' 때문이다. '비렁'은 벼랑의 여수 사투리다. 금오도 해안절벽과 해안단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이다. 걷기 열풍이 일어나 전국 곳곳에 걷는 길을 조성했는데, 금오도도 2010년 비렁길을 조성했다. 금오도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해안 대표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특산품으로는 방풍나물이 유명하다.

금오도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기독교 유적지가 있다. 우학리교회(남면 우학리 226)와 교회 바로 옆에 세워진 이기종목사순교기념관이다. 우학리교회는 1908년 4월 5일에 세워진 교회다. 선교사들이 세운 대부분의 조선 초기 교회들과 달리 주민들 스스로 세운 특별한 교회다. 이기종 목사는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이면서 순교자다. 이기종 목사의 마지막 사역지가 우학리교회다. 이 목사는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1942년 6월 20일 우학리교회에서 별세했다.

금오도에 가기 위해선 배를 이용해야만 한다.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금오도까지 소요시간 1시간 30분), 백악도 선착장(35분~1시간), 돌산도 신기항(25분)에서 배를 탈 수 있다.

크리스천들을 위한 독서생활

말씀과 신앙서적 읽으며 마음 받을 가꾸자!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다.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 맞으며, 그윽한 국화차 한 잔과 함께 책장을 넘기기 정말 좋은 계절이다. 크리스천들은 가을을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마음 받을 가꾸는 계절로 꾸며보는 것이 어떨까?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해가 짧아지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다. 제법 쌀쌀한 바람에 옷장 안에 넣어둔 두꺼운 이불도 꺼냈다. 얼음 동동 띄워진 음료보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다. 그런데 올해 가을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상을 바꿔놨기 때문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무척 늘었고, 비대면 문화가 주류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여가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영상매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운동과 요리 같은 취미활동들도 ‘홈트’, ‘홈쿡’이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하고 있다. 독서 또한 집에서 즐기는 여가생활로 각광받고 있다.

교보문고 ‘2020년 상반기 도서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에 따르면, 전체 도서 판매 권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증가했다. 지난달 10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발표



성도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서점에서 신앙서적을 읽고 있다.

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8월 한 달 동안 예스24 도서판매량이 지난 동기 대비 32.2%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독서량이 증가하면서 도서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서관과 서점 이용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11번가 8월 도서 카테고리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 늘었다. G마켓에서도 도서·e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9% 증가했다.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배송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e-Book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지난 달 9일 11번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

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전자책 단말기 등 태블릿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17%나 증가했다. 예스24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북클럽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7% 늘었고, G마켓 전자책 판매량은 무려 238% 증가했다.

크리스천들의 독서생활 성경과 신앙서적 읽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독서생활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공허하고 어려운 마음을 성경말씀과 신앙서적을 읽으며 든든히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 기간을 보내며 성경통독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학청년부는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통독’ 과정을 열고 8주 동안 매일 성경을 읽었다. 여호수아청년부는 자체적으로 ‘온맘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다. 성경통독을 돕기 위한 양육과정 ‘성경일독학교’를 수강하며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다.

황유미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화를 계속 발견하고 싶다”고 고백했고, 진성미 자매(W청년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했다.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유익한 신앙서적도 적극 소개하고 있다. CGNTV는 ‘복음책방’을 통해 기독교 고전부터 현대 명작까지 다양한 신앙서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CGNTV 복음책방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가 패널들과 함께 책에 대한 소감, 해설, 간증 등을 나누며 시청자들에게 책을 보다 흥미롭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CGN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방영된다.

두란노서점은 온누리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온라인 구매 웹사이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일대일제자양육 교재, 두란노서원 추천도서, 목회자 추천도서, <생명의 삶> 등을 판매하고 있다.

두란노 신간 소개

차세대 신앙성장 돕는 ‘시편’



《어린이 시편 한 달 쓰기》
편집부 엮음 | 두란노 | 8,000원

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등 총 11가지 주제에 적합한 시편 말씀을 선정했다. 이 책은 초등학교 3~4학년 차세대들이 읽고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두란노서원에서 차세대들의 신앙성장을 돕기 위하여 <어린이 시편 한 달 쓰기>를 출판했다. <어린이 시편 한 달 쓰기>를 활용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시편 31개를 매일 한 편씩 쓸 수 있다.

이 책은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성경 본문에 관한 배경 설명, 따라 쓰기 구절 중 한 구절을 암송하기, 영어 성경 읽기, 외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퀴즈, 그리기, 색칠하기 등 다양한 놀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쓰기와 외우기 등 미션이 끝나면 칭찬할 수 있는 칭찬스티커도 동봉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간구하기’, ‘말미암아’, ‘제단’ 등 생소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고 있다.

‘불안하지 말아요’, ‘짜워야 멋있어요’, ‘땀은 정직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로 이기고 싶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랑, 신앙, 진리



《내 마음에 두신 노래》
셀리 로이드 존스 저, 제이고 그림
| 두란노 | 18,000원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오해하고 모르는 비신자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회복하고 위로와 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다. 교회도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신앙에 고민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책이 나왔다. <내 마음에 두신 노래>다.

이 책은 창조, 죄, 구속, 율법 등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따뜻한 글과 그림으로 쉽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우리를 댔던 거대한 재앙’,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등 101가지의 주제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기초,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게 만든다.

책 <내 마음에 두신 노래>는 초신자부터 어린 자녀, 비신자,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싶은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성도까지 누구에게나 유익하다. 신앙의 첫발을 내딛는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며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어린 자녀들은 쉽고 친절한 설명을 통해

전문가 기고

슬기로운 ‘비대면 소통’ 기술

코로나 시대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수업 시작 전부터
마이크가 제대로 작
동하는지,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어
떠한지 마지막 점검
을 해본다. 이제 곧
시작되는 비대면 온
라인 실시간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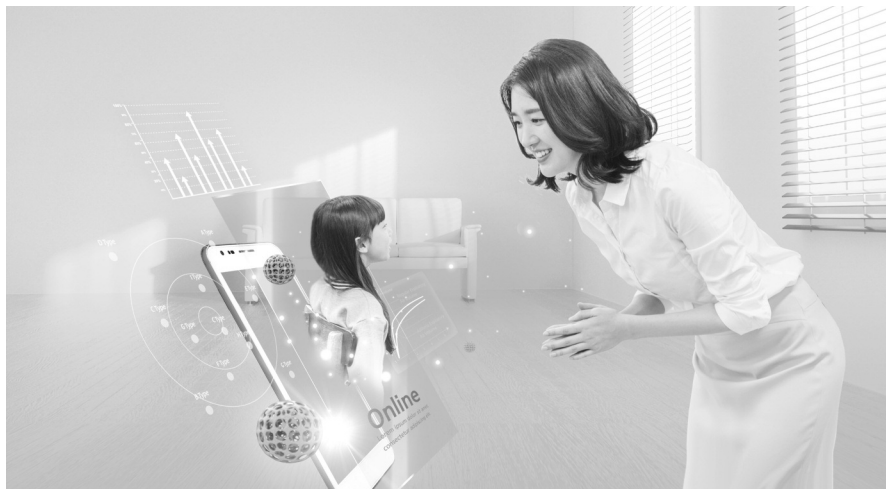
이름이 대기창에 하나둘 올라온다. 쿵다쿵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학생의 이름 옆에 있는
‘수락’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학생들이 온라인 라
이브 클래스에 들어왔다.

“환영합니다.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
다.”

마치 앵무새처럼 학생들 얼굴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채 반복된 인사를 했다. 겉으로는 태
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한 상
태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의 교실수업을 생각해보도 첫
수업 시간 10분은 실로 정적과 어색함이 흐르
는 순간이다. 하물며 실재감이 확연히 떨어지
는 온라인 라이브 환경에서의 첫 만남이 어떠
하랴? 학생들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어떤 학생과 눈을 마주치는지 알 수 없
고, 각각 다른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무
의식적으로 반복된 인사를 하게 된다. 신기하
지만 어색한 비대면 첫 만남의 기억이다. 쌍방
향 온라인 만남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신기하지만 어색한 첫 만남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기억은 비대면 환경에 대한 우
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소통
이 내용과 환경, 대상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단
는 것을 고려할 때 비대면 환경에 맞는 효과적
인 소통방법 또한 존재할 것이다.

어느 고등학교 온라인 라이브 영어수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카메라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한 학생이 선생님의 눈에 들어왔다. 화면이 밝
은 것으로 보서는 야외에서 어디가를 향해 바
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선생님
은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를 열심히
가니?”라고 질문했다. 학생은 “밥을 못 먹어서
겁라면 사먹으러 편의점에 가요”라고 해맑게
대답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수업시간에 교문
밖 편의점에 가는 일을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그 일이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라
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 선생님은 재치 있
게 “그래, 맛있게 먹으면서 평소처럼 잘 경청하
고 반응하렴!”이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
에 잘 참여했다. 선생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학생에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소통이다.

안정감을 준다. 비대면 온라인 모임에서 소통
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번 기고
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소통할 때 진
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을 갖고자 한다.

실재감을 높이는 ‘공감’과 ‘질문’

대면(對面), 비대면(非對面) 환경을 떠나 참여
하고 싶은 모임은 그 모임만의 특징이 있다. 누
가 호스트(주인)이고, 게스트(손님, 참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참가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모임의 목
적에 맞는 올바른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모임이 되려면 비대면 환경에서도 참가자가 자
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면환경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그 실재감이 말
과 표정을 통해 잘 전달되지만, 비대면 환경에
서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다. 대
면보다는 함께하는 느낌이 확연히 덜하다. 그
런 이유로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 참여한 다수
의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그리워한다. 그런데도
비대면 환경에서 참가자의 실재감을 높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무엇일까?

첫째, 함께 하고 있다는 ‘공감(empathy)’의
표현이다. 필자가 청년수련회 강사로 처음 유
튜브 실시간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참가자
들의 표정을 통한 반응은 알 수 없었지만, 채팅
을 통해 질문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했
다. 강의를 끝나고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눈으로 볼 수 없어 공허한 마
음이 들었다. 그런데 채팅창에서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공감하는
문장을 보게 되었다. 그 한마디가 필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또 다른 강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모 그룹에
서 비대면 강의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채팅 혹은 말로 표현하면서 진행
한 쌍방향 온라인 특강이었다. 필자가 자연스
런 소통을 위해 강의하면서 틈틈이 채팅창을
확인했는데도 질문이나 반응, 참가자의 중요한
채팅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생겼다. 그때 한
명의 참가자가 필자가 놓치는 것을 채팅창 귓
속말 기능을 통해 전달해주었다. 필자의 강의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채팅창에 반복해서 적
으면서 요약까지 해주었다. 그 참가자는 하나
님께서 그날 나에게 보내주신 조력자라는 생각
이 들었다. 이러한 따뜻한 협력이 온라인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서로
인정과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비대면 강의가 생각 이상으로 잘 마
무리되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비대면 환경에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
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마
이크를 켜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채팅창에 공감을 표현
하는 것이다. 긴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채팅
창에 “공감합니다”, “정말 그래요”, “맞아요” 등
짧은 단어나 문장을 통해 공감을 자주 표현해
주면 좋다. 카메라를 보면서 바디랭귀지를 하
는 것도 좋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한
공감을 표현하면 모임의 실재감이 높아지게 되
고, 더욱 몰입하게 된다.

둘째, 서로 나눔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질문
(question)을 하는 것이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모임시간을 장시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몰
입도를 높이기 위해 강사나 진행자는 이야기를
최소로 하고, 가능한 참가자 입장에서 좋은 나

눔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면 참여형 진행
을 할 수 있다. 참가자가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
는 좋은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비대면 환경에
서 호스트에게 요구되는 핵심 능력이다.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맥락을
따라 점차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나
눔의 순서를 미리 설계해야 비대면에서의 몰입
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임을 시작하면
서 참가자에게 “자신의 컨디션을 1~10점 만점
으로 했을 때 현재 몇 점인지 채팅창에 숫자를
적어주세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숫자
를 적는 것은 큰 부담이 없고, 참가자가 입력한
컨디션 정도로부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이
야기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호스트는 참가자들이 가장 편
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할지를 모임 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을 흐름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많은 참가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비대면
상황에서 더욱 요구된다. 질문을 준비하는 이
유는 강의나 모임에 참가한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임 내내 높은 몰입도를 지속하며 참여시키기
위함(engage)이다.

필자는 온라인 순예배에서 한 권사님의 말씀
에 은혜를 받았다. 교회에 갈 수 없고, 보고 싶
은 순 식구들도 보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온라인에서 순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
쁘다는 말씀이었다. 복음의 간절함을 가진 사
도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그런 그가 옥중
에서 편지로 성도들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
려드린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
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렐
1:3~4).

사도 바울과 성도는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
에서도 하나님께 중보기도와 마음을 담은 편지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비대면 환경에
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
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순 식구와 주변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일도 그렇다. 비대면 환경에서라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웃
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너무
나도 많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 이웃들
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소통
이다. 이웃사랑이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소통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잘
모색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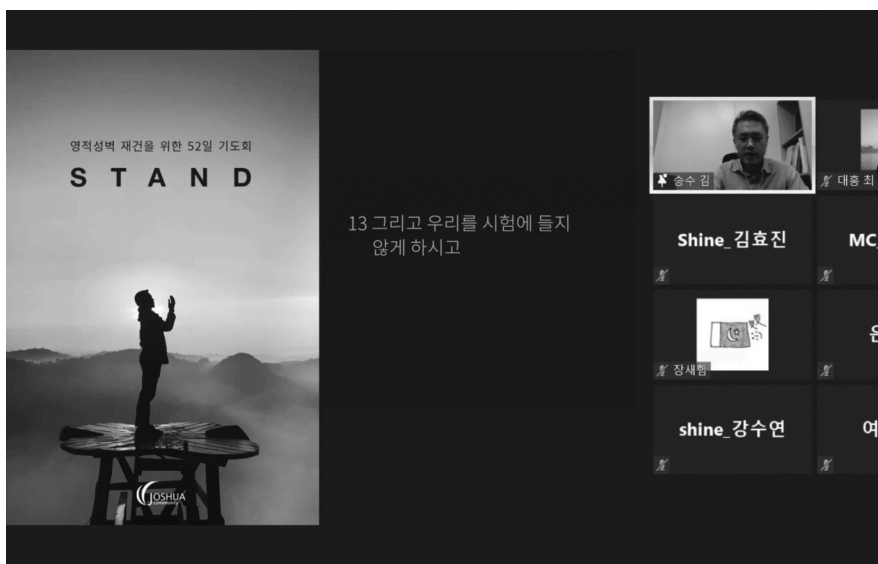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공동체,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이하 STAND 기도회)를 매일 밤 한 시간씩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절대 참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여러 문제와 삶의 무게로 힘겨운 일상이 이어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다. 혼자 시간을 정해 기도하려고 했지만 매일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항상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왔던 나였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STAND 기도회에 참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STAND 기도회에서는 기도 시작 전에 먼저 설교를 듣는다.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힘을 내서 내일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이었다. 가끔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알아들어야 할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 때가 있다. STAND 기도회에서 듣는 설교가 그랬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각자의 삶에 소망과 힘을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바쁜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면서 오히려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불안해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미래를 걱정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졌다. 물론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오히려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셨다. 나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마음도 주셨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나에게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잠잠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곳이 교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회 자리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라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 지금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느낄 수 없지만,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 늘었다.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쟁터 같은 삶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늘에서의 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스스로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과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그분을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행 17:27-28).

/ 김효진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수원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

나는 B국에서 살고 있다. 사랑(13살), 믿음(11살), 소망(7살)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하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다. 나는 이 시간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말씀통독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었다. 그때 유영순 목사님의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기쁜 맘으로 세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에 참가했다.

유영순 목사님은 강의를 통해 매일 읽을 성경 분량을 정해주시고, 읽을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다. 꼭 외워야 할 말씀은 족집게 교사처럼 입에 넣어주셨다. 그런데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기가 쉽지 않은 초등학교 남자 아이에게 1시간 30분은 길었던 것 같다. 가만히 앉아 강의 듣고, 말씀 읽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왜 예배를 두 번이나 드려요?”, “오늘은 왜 이리 길어요?”라고 투덜대기 시작했



서예스더 선교사와 자녀들이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 강의를 듣고 있다.

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계속 움직이고 강의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왜 집중하지 않고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니?”, “왜 마음을 쏟지 않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 거니?” 등 잔소리를 쏟아냈다. 그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딸아, 네 마음은 어떠한?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니?”

찬찬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 자신, 네 마음이란단다. 나는 너를 감독관으로, 선생으로 부르지 않았다. 네가 나에게 전심으로 나아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거룩은 사랑이다”

그날 이후 둘째 아들은 온라인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달려와서 “우리 성경일독 언제 해요?”라고 묻는다. 가끔은 종일 수업을 받고 피곤한지 졸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온라인 OBC 성경일독학교에 참가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읽기를 꺼렸던 레위기 말씀이 너무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B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이곳은 1년에 한 번씩 희생제사 의식을 치른다. 모든 사람들이 양, 소, 염소 등을 준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다. 올해는 8월 초에 행해졌다.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길거리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로 물들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속건제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말씀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부어지면 기도하게 된다. 레위기를 마치며 “거룩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유영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매순간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기를 기도한다.

/ 서예스더 선교사

코로나19, '비대면 사역'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2000선교본부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

나는 현재 서울 목동에 있는 한국선교훈련원(GMTC)에서 선교사 훈련 사역과 일본선교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GMTC에서는 일 년에 두 차례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전반기 21주 하반기 16주 동안 훈련을 실시한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동체 훈련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강의 그룹을 나누어 진행해야 했고, 식탁 교제와 여러 활동들을 포기하며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해야 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격상된다면 또 다른 대안적 소통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일본인이 회심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두루 다니며 복음전도 및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갑자기 하늘길이 막힌 것이다.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000선교본부에서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2000선교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윤희 선교사가 구글 스위트를 활용해 다양한 연령대를 전도하고 교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준비해야 하고, 콘텐츠 개발을 시작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나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두 달에 걸쳐서 배우면서 '일본선교 맥잡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구글 스위트의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온라인 클래스를 배우면서 '일본인을 위한 전도성경공부' 강의를 계획하고 입력해 보았다. 사역을 위해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

다고 생각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배우고 실행하기로 했다.

계속 따라하다 보니 이해가 되면서 재미있어졌다. 그리고 구글 스위트의 플랫폼 중 하나인 구글 클래스룸을 잘만 활용하면 대면 사역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학생들의 원격 수업이 대부분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

으니,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교육 대상자들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겼다.

구글 클래스룸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 기존에 한 두 시간씩 진행하던 강의들을 더욱 세분화하고, 영상 등 다양한 강의 자료들을 링크해서 업로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교육 대상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들어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비대면 사역의 장점일 것이다. 강의와 더불어 리포트, 화상 등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면 대면 강의만큼이나 효과적일 것 같다.

나의 경우 선교 경력이 있고 전달할 콘텐츠는 있지만 IT와 비대면 사역은 초보 수준이다. 최근 2000선교의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 차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비대면 사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잘하고 싶은 의욕은 많지만 마음만큼 몸과 손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교회의 꾸준한 지원과 IT에 달란트를 가진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비대면 선교 사역을 잘 빠르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며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 조윤희 선교사(GMTC)

코로나19, '비대면 사역'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2000선교본부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

온라인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중동에서 현지 젊은이들, 주변국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과 매주 토요일 함께 영어예배를 드리며 작은 공동체를 이뤄갔다. 사역을 시작한지 3년이 되어가며 성경공부, 일대일제자양육, 성경읽기 등 젊은 형제자매들과의 소모임 등을 통해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형제자매들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형제자매들과의 소통은 주로 메시지에 의존해야 했고 현지사정이 조금 나아진 다음에는 현지에 남아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 온라인 예배가 드러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예배가 되거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팀 안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마침 우리 부부가 6월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2000선교본부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을 실시해 주셨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앞으로의 사역과 선교방향을 제시해 주신 귀한 교육이었다. 선교사들을 위한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 강사님들은 비대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마음가짐부터



한레아 선교사가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다.

준비시켜 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역을 이어나갈 방법과 플랫폼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 1차에서는 영상 제작과 편집, 2차에서는 구글 스위트 활용법을 배웠다. 남편은 1차 교육을 받고 유튜브 채널

(Qrious Gabby)을 개설하여 선교의 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나는 보안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플랫폼인 구글 스위트를 통해 일대일제자양육, 소모임, 성경공부 등 온라인 교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다. 아직 기획단계이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나는 구글 스위트를 활용하여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어놀이교실이다.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료제공과 소통, 피드백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 스위트가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큐티나눔방이다. 두세 명이 모이는 큐티나눔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다. 비대면 사역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제한적인 소통으로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는 좋은 소통과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2000선교본부가 실시한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을 통해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온라인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만큼이나 실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온라인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류는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다양한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이 소통하며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 한레아 선교사(중동A국)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SNS공동체 '허들링 기도회'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제한이 생기면서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어둠 같은 상황에서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에도 더욱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로는 육신의 피로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생겼다. 그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준 시간이 바로 SNS공동체 기도모임 '허들링 기도회'였다.

SNS공동체는 코로나19 이후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집중했다. 비록 몸은 떨어져있지만, 기도의 부르심 앞에 하나의 영으로 묶여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었다.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마른 장작같이 마음이 굳은 것 같고 기도가 뻘어나가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도 쉽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하나



박현규 형제는 공동체가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다. 기도하기를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공동체 중보 기도팀에게 주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삼상 3:19)라는 말씀을 붙잡으며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다.

메마른 마음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

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마른 장작과 같던 내 마음에 큰 불을 지펴주셨다. 성령님의 마음을 크게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의 순간에 함께 계셨고, 기도의 제물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도는 나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과 시간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았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인간의 뛰어난 지식과 기술력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경험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다.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무거운 짐 하나를 툭 던져놓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 그 모든 기도의 시간에 함께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이 시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기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다.

/ 박현규 형제(SNS공동체)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SNS공동체 'CO-IN 기도회'

CO-IN 기도회는 연결된 개인이라는 'CO-INDIVIDUAL'의 의미와 코로나19 시대에 공동체 안으로의 연합을 강조하는 'CO-INSIDE'의 약자다. CO-IN 기도회는 각자 존재하면서도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고유한 사명을 이루고자 시작된 기도회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이번 CO-IN 기도회의 주제다. 사도 바울은 삶의 아주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고,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재림관과 종말론을 가르칠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다. 매일 쉬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은 때 순간 기도로 호흡하며 성령님을 의식함으로 늘 깨어있어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매일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쉬지 말고'라는 헬리어 단어는 밀바닥, 시면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결합 되어있는 단어라고 한다.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밀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자신만의 기도의 과정을 만들자!

**CO-INDIVIDUAL
CO-INSIDE
CO-IN**

연결된 개인이라는 co-individual의 의미와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안으로의 연합을 강조하는 co-in 기도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시대적 아픔을 이유로 어디까지 개인과 개인, 영혼과 일상, 사명과 삶 사이에 거리를 두고 지낼 것인가 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지키면서도 '함께'를 유지해야 하고 삶을 지속하면서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co-in 기도회는 각자 존재하면서도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공동체 고유의 기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시작되는 기도회입니다.

두 법문을 드린 과부와 같이 작은 동전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SNS COMMUNITY 금요 CO-IN 기도회

**CO-INDIVIDUAL
CO-INSIDE
CO-IN**

연결된 개인이라는 co-individual의 의미와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안으로의 연합을 강조하는 co-in 기도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시대적 아픔을 이유로 어디까지 개인과 개인, 영혼과 일상, 사명과 삶 사이에 거리를 두고 지낼 것인가 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지키면서도 '함께'를 유지해야 하고 삶을 지속하면서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co-in 기도회는 각자 존재하면서도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공동체 고유의 기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시작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아픔을 이유로 어디까지 개인과 개인, 영혼과 일상, 사명과 삶 사이에 거리를 두고 지낼 것인가 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지키면서도 '함께'를 유지해야 하고 삶을 지속하면서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co-in 기도회는 각자 존재하면서도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공동체 고유의 기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시작되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아픔을 이유로 어디까지 개인과 개인, 영혼과 일상, 사명과 삶 사이에 거리를 두고 지낼 것인가 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지키면서도 '함께'를 유지해야 하고 삶을 지속하면서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co-in 기도회는 각자 존재하면서도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공동체 고유의 기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시작되는 기도회입니다.

SNS COMMUNITY 금요 CO-IN 기도회

김은아 자매가 CO-IN 기도회를 통해 자신만의 기도의 과정을 만들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인생의 깊은 밀바닥을 지날 때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삶에서 정말 밀바닥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내 앞에 쌓여있는 문제들 속에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 고개를 들어 주를 보면 지혜가 생기고, 의지할 곳이 생겨 마음 가운데 숨 쉴 만한 평안

이 찾아온다.

CO-IN 기도회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까지는 자신만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도해왔던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만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목사님은 기도의 과정을 'ACTS'로 설명해주셨다.

첫째, A는 찬양(Adoration)이다. 깊은 기도

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의 성품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둘째, C는 고백(Confession)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청결해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 T는 감사(Thanksgiving)이다. 감사는 열리지 않았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다. 너무 힘들거나 무언가 막혀있을 때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넷째, S는 간구(Supplication)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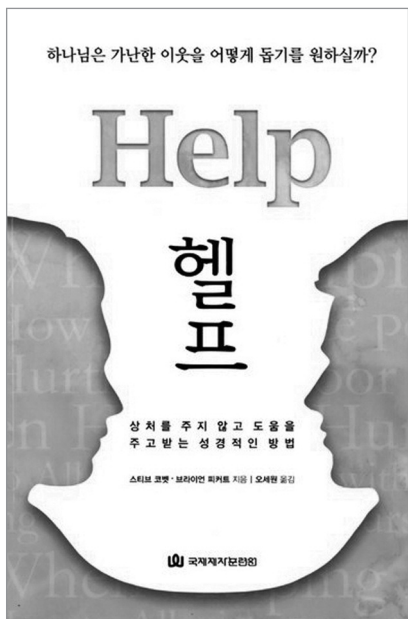
기도의 과정 'ACTS'에 정답은 없다. 그저 자신만의 기도의 과정을 만들어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고, 매순간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기도로 호흡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신만의 기도의 과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 김은아 자매(SNS공동체)



책 읽어주는 목사

이웃사랑



〈헬프〉

스티브 코벳, 브라이언 피커트 저
| 국제제자훈련원 | 15,000원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돕는 일, 이웃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책의 주제는 부제,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에 담겨있다. 부제에서 ‘가난한 이웃’이란 단어

를 봤을 때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떠올렸거나 물질적인 도움이 생각났다면 꼭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

저자는 가난을 물질적인 것에만 제한하고, 이웃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만 정의할 때 이웃사랑은 그 생명력을 잃는다고 말한다. 이 책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신비로우며, 생명력이 있는 단어다. 이웃사랑에는 이웃사랑을 성경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이웃사랑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려면, 먼저 현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관계적인 존재라는 점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영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다양한 가난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살아계심이 느껴

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죄나 어떤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영적인 가난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분열되기만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행함으로 이를 수 있었던 삶과 비전과 모든 소망이 그 빛을 잃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에덴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처럼 온전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바라본 가난이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다양한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가난을 통해 빈곤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각자의 가난이 다양하듯이 이웃사랑도 그 형태가 다양하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 이웃사랑의 형태가 물질제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소외된 이웃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랑일 수도 있다. 또는 누구나 와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건강한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 하나님과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관

계를 유지함으로써 바로 옆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참 모습이다.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닌 생명이다. 먼저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러나 지금 추수는 커녕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최고의 때이다. 그렇게 서로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누구도 주저앉아 울지 않고 모두가 추수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가을을 보내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기독교 콘텐츠

비대면 예배콘텐츠 ‘광야 복음뮤지컬 집회’



광야아트센터가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비대면 예배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광야 복음뮤지컬 집회에서는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요한계시록〉 등 광야아트센터가 제작한 복음뮤지컬도 일부 공개한다. 기독교 뮤지컬 프로듀서이기도 한 김관영 목사가 뮤지컬을 창작하게 된 배경부터 과정, 등장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준다. 광야아트센터에서는 광야 복음뮤지컬 집회영상을 각 교회 수요일예배나 금요기도회 등에서 예배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광야아트센터(02-741-91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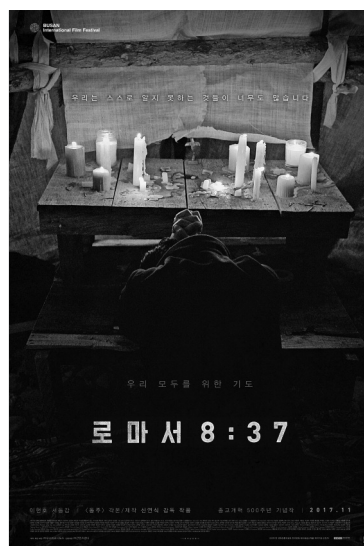
광야아트센터는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 〈요한계시록〉, 〈루카스〉 등 다양한 복음뮤지컬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공연한다.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은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외워서 전파했던 물라드들의 신앙을 담은 뮤지컬이다. 지난해 객석 점유율 94%를 기록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월, 화, 목, 금, 토 공연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실시한다.

기독교 공연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광야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응원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예배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광야 복음뮤지컬 집회’가 바로 그것이다. 비대면 예배콘텐츠다.

넷플릭스에서 만나는 기독교영화

세속적인 패배 끝에 이미 획득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



‘로마서 8:37’

달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 영화 주인공이 나락까지 떨어진 다음에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영화 ‘로마서 8:37’은 약간 무거운 영화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느껴지는 고민과 은혜는 색 다르다. 이 영화에는 믿음에 대해 고민하는 자,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 기도에 기대어 믿음을 타인에게 맡겨버린 자 등이 나온다. 나의 신앙과 죄는 어떠한 모습인지 진솔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영화다.

‘로마서 8:37’의 신연식 감독은 이 영화를 “영화 속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영화 ‘로마서 8:37’는 전도사 ‘기섭’이 자신의 우상인 형 ‘요섭’이 목회하고 있는 부순교회의 간사로 사역하면서 시작된다. 기섭은 부순교회에서 형 요섭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사고들과 마주한다. 그리고 그 사건사고들을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모습에서 내면에 숨어 있는 죄를 마주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신연식 감독이 로마서 8장 37장 말씀을 영화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 이 영화가 사회 고발성 영화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세속적인 패배 끝에 이미 획득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 31일까지 세레결신서 제출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이 지난 9월 25일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됐다.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는 당초 8월 2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사전녹화를 했다. 10월 7일 기준으로 약 1,700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벌써부터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결신했다.

김우영 선교사(2000선교본부)는 “영상 시청 내내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결신카드에 서명하실 줄 기대도 못 했다”면서 “두 분이 세례 받는 날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성 성도가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시청한 후 아버지께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손승희 성도(상해 온누리교회)는 “비록 어머니가 결신하진 않으셨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어머니 마음에 심어 주셨으리라 믿는다”며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섬겨준 조장님과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은 온

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세례결신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행복드림2020’ 채널에서 공지한 온라인 결신서를 작성해서 10월 31일(토)까지 보내면 된다. 세례식 일정은 11월 중순 공지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0월부터 마지막 주일 세례 재개

토요 1부, 일요 2~4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세례식(성인, 유아, 입교)이 재개된다. 10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 서빙고, 양재 토요 1부 및 일요 2~4부 예배에서 세례식을 거행한다.

예배가 영상예배로 진행되더라도 세례자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50명에 포함시켜 서빙고 본당, 양재 사랑홀에서 세례식을 진행한

다. 다만 예배당 세례 인원은 제한한다. 유아세례 4명(부모 포함 12명), 성인 세례(입교) 8명 이내로 선정한다. 세례 교육은 영상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문의: 02-3215-3263(서빙고) 02-570-7277(양재)

온라인 액티브S클럽 수강생 모집

10월 18일~11월 15일 온라인(ZOOM) 강의

사회선교부 은빛날개사역팀에서 온라인 액티브S클럽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액티브S클럽에서는 퇴직 및 은퇴자가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사역자로서 비대면 사회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강의는 독서

토론 및 나눔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1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액티브S클럽(Active Senior Club)은 퇴직이나 은퇴 이후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문의: 010-5336-5820

대학청년부 공동체 온라인 기도회

부서	공동체	기도회	기한	요일	시간
청년부	여호수아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9/14~11/4	월~토	오후 10시
	요셉	영적 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Up	10/5~11/25	월~금	오후 10시
	CH PLUS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 기도회	9/1~10/26	월~토	오후 10시
	J4U	Plan C 기도회	기한 없음	금	오후 8시
	W	세이레 기도회 Wilderness CO-IN 기도회	10/19~11/8	월~토	오후 10시
	SNS	허들링 기도회	기한 없음	토	오전 11시
				토	오후 9시
				일	오후 2시
대학부	갈렙	토요 중보기도회	기한 없음	토	오전 11시
	길	길 공동체 온라인 기도회	기한 없음	금	오후 9시
	허브	The Calling	기한 없음	금	오후 8시
	하늘	인스타 라이브 기도회	기한 없음	매일	오후 11시



NGO 더멋진세상 지역 사역 활성화

필리핀 아팜타바 마을 진입로 공사 및 컴퓨터실 설치

NGO 더멋진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지역 사역들을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현지지역자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선교지 주민들을 섬기는 지역 사역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필리핀 아팜타바 마을에서는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와 아팜타바 초등학교 컴퓨터실 설치를 했다. 논길을 따라 형성된 좁은 비포장도로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포장도로로 탈바꿈했고, 아팜타바 초등학교에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컴퓨터 10여 대가 설치됐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치유’ 세미나를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간의 감정적, 정서적 문제들을 상담과 성경의 통합적 접근으로 이해하고,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안내한다. 아가페초월 상담연구소 김용태 박사가 강의한

다. 마음에 관한 주제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2만5천 원이다. 10월 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5천 원 할인해 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www.uranno.com/biblecollege)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게시물로부터 1주일 동안 수강하면 된다.

문의: 02-2078-3456

두란노 서점

온라인 스토어 개설

두란노서점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생명의 삶>,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공동체 양육 필독서, 목회자 추천 도서, 두란노서원 추천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어에 있는 도서를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배송이 가능하다.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 또는 쿠팡으로 접속해서 이용하면 된다.

문의: 02-796-2310



청장년들의 재정, 부채 고민을 한방에!

부채탈출119 참가자 모집

부채탈출119는 재정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부채 및 가계부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온누리교회 성도 및 온누리교회 성도의 추천을 받은 청장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skyaiaman@naver.com)이나 팩스 02-6455-2644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10월 유아세례

유아	박리우 180930	오유진 040227	이규성 050726
김노아 180423	박성환 임진영	이인환 051114	이재준 050126
김이진 박미연		이진영 050420	조한민 040226
김노아 181023	입교	황유빈 050704	권예담 051103
김준완 김미현	이수민 050218	김수연 040212	김수영 050808
김하윤 190102	박수아 050406	심태용 051021	이선교 050627
김양진 한성희	배윤서 050711	안도원 051103	함규빈 050824

온라인 OBC 로마서 간증



/ 박은진 성도(동대문중랑공동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었다

올해는 직장에서 평가가 있어서 교회세미나는 내년으로 미루기로 다짐했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로 직장 평가가 연기되고, 교회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뜻하지 않게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처음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에 참가할 때는 ‘강의만 들으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임했다. 그런데 과정을 이어가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다. 논리적이지 않은 나에게 논리적이며, 신학적이고, 실전을 강조하는 로마서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서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은 삶이 변화되었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마음을 지체들과 나누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내가 중보기도제목을 나눈 날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QT처럼 조금씩 읽으며 깊게 묵상해보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기쁨이 솟구쳤다.

로마서 강의를 들을수록 말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복음의 진수가 나를 더 구하

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었다. 공부하던 책들을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강의를 다시 들었다. 지체들과 강의 내용을 나누면서 온전한 소망과 믿음, 사랑이 담긴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했다.

어릴 적부터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로마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마무리된다. 아직은 아무 것도 된 것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될 것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로마서 말씀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에 눈을 뜨게 하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역사하시리라 믿는다.

많은 준비와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신실한 화신으로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로마서를 통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해주신 신원석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한다.

온라인 OBC 로마서 간증



/ 김지형 성도(동대문중랑공동체)

참된 복음의 진리

로마서는 성경 전체 말씀 중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보석과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핵심 중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왔지만 사실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원론과 율법에 대한 논쟁, 구원 예정설을 둘러싼 논란까지. 깊이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들으며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롭게 짚어가게 되었고, 그동안 오해했던 많은 부분과 온전한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하용조 목사님 9주기를 맞아 새벽예배에서 목사님의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 설교를 들으며 다시금 로마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너무나 뜻 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로마서 9장 이후에 나타난 유대인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특별히 이 내용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12장 이후에 나오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언급을 묵상하면서 이

러한 동족 사랑의 밑바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선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배웠다. 로마서의 마지막은 바울의 선교전략 정리와 문안 인사로 마무리 되는데 이 또한 넘치는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나의 일상이 변했다. 오직 구원은 믿음에 의하며, 행위에 의존한 율법적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생각이 변했다. 복음의 핵심적인 이 말씀은 단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행위로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하루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큰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이윤경 성도(이촌공동체)

나와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해주셨다

익숙한 신앙생활, 바쁜 학창시절과 직장생활을 핑계로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오래도록 미루고 있었다. 나의 이 게으름은 섬김과 봉사에 힘쓰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 나는 차세대 교사 아웃리치에서 지금의 양육자님을 만났다. 교제하면서 권면을 따라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시작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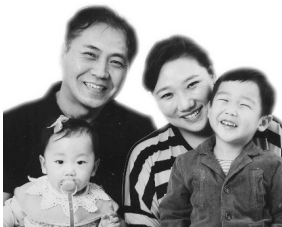
양육자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답안지 같았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때마다 양육자님은 나와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해주셨다. 또한 양육자님은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셨다. 기도제목도 나누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구별된 것이며,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결끄러운 관계의 동료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맞서서 공격적으로 대해야 할지 그냥 무시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양육자님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축

복해 주라고 조언하셨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기본 나쁜 감정을 참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주는 것은 성경책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육자님의 권면대로 그 사람을 일단 축복했더니 분한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이 내 마음 속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양육자님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된 것은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을 귀히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매우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양육자님은 일에 탁월할 뿐 아니라 전쟁 같은 일터에서도 동료와 후배들을 각별히 돌보는 은사를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회사 일을 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따라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축하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아세례 간증



/ 유아: 김하윤, 부: 김양진, 모: 한성희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것이다

어릴 적 이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많은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레 그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릴 적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배움과 전공(한의학)의 근저에 깔린 동양철학적 지식으로 인해 도리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이 많아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원을 개원했다. 스스로 환자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병원도 잘 되어서 나름 잘 나가는 한의사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이후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나의 부와 명예가 순식간에 허물어져버렸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에만 침거하고, 한숨과 번민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작은누나의 손에 이끌려 서빙고 온누리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작은누나는 나에게 교회에 다니면서 허물어져버린 마음을 추스르라며 따뜻하게 위로해주었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임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평일에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점차 회복이 되어갔다. 새가족 등록도 하고, 일대일제자양육 과정도 받으면서 믿음이 깊어져 갔다. 오래 지나지 않아 세례도 받게 되었다.

우리 둘째 아이 하윤이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로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자라도록 항상 축복할 것이다. 하윤이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권사칼럼

나의 믿음이 새롭게 깨어나다



송호춘 권사
(경기A공동체)

교회에 창조과학에 관한 강의를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굳이 그 강의를 들을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창조신앙스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듣게 되었다.

재택근무로 인해 여유로워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신청했는데,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스럽고 흥미로웠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듣는 동안 성경의 이야기들이 연상되면서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던 희미한 것들이 실체를 갖고 뚜렷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만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창조과학 강의를 유튜브로 듣고는 했는데 이번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는 더 다양한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또 여러 명의 강사님들이 각기 다른 분야를 강의해주셔서 더욱 깊고 풍성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내게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진화론은 단지 이론에 불과하다는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학창시절 진화론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서 굳어져 있던 내 생각과 사람들이 하는 진화론적 이야기에 반론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중간단계의 화석이 없고, 현재도 화석과 동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등 진화론의 딜레마를 배우면서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흥미롭게 보았던 노아의 홍수사건이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통해 더욱 뚜렷해지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들과 미국 서부여행을 할 때만 해도 그랜드 캐니언을 하나님의 멋진 창조와 전혀 연결하지 못하고 멋진 관광코스로만 생각하며 다녔다. 조금 더 일찍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었다면 그때 더욱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기회가 된다면 창조과학탐사를 꼭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흥분되는 듯하다. 코로나19를 통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우상 숭배와 이단, 음란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정말 감사드린다. 다소 생소한 영상강의였기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날도 많았고, 가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날도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마저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대로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걸어 온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겠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야겠다. 타성에 젖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어났음을 고백한다.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창조신앙스쿨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해주신 스태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창조신앙스쿨
일정: 11월 1일~29일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방법: 온라인(ZOOM) 실시간 강의
문의: 010-4658-0987

‘사르밧 프로젝트’ 협력교회 간증

얼어붙은 농어촌교회를 깨우다!



이기성 목사
(초원교회)

경상남도 진주시 명선면 선기리에 자리한 ‘초원교회’는 작은 농어촌교회다. 진주시 명선면은 진주 시내까지 가려면 30분 정도 걸리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 교회가 얼어붙은 것은 농촌도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미약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예년처럼 풍성하게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초원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주석에 맞춰서 보냈다. 풍성하고 넉넉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기 위해 주석 즈음 성도님들과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펼쳤다. 먹을 것은 풍성하기 때문에 의료선교를 하거나 꼭 필요한 생필품을 나눴다. 음악회를 열기도 했는데 추수감사절 사역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 함께해 주셨다. 초원교회가 세워진 10년 전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아웃리치, 농산물 판매 등 다양사역으로 초원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와 농어촌교회, 지역 농가들과 함께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 사르밧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내게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와 지역 농가들의 농산품을 판매하는 가교역할은 해보았지만, 지역 농협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온누리교회의 요청은 초원교회뿐만 아니라

진주시 명선면 북부농협의 필요와 딱 맞아 떨어졌다. 20kg들이 쌀 400포대가 필요하다는 말에 북부농협 조합장님부터 손을 건어붙였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나락으로 보관하던 쌀을 도정하고, 북부농협 임직원들이 일일이 포장했다. 이 쌀을 받아보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맛 좋은 쌀을 드실 거라고 자부할 수 있다. 북부농협 임직원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고 수입까지 생겨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초원교회와 지역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간접적으로나마 선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역동성이 얼어붙어가는 농어촌교회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역이 있다. 지역 다문화 아동들을 섬기는 기숙형 국제학교다. 초원교회 인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양육되고 있는 다문화 아동들이 많다.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마음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을까 고민하다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으로 그들을 돌보기로 결심했다. 7명의 성도가 교사양성과정을 진행 중이다.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도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입학설명회를 가지고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초원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5명이 입학한다. 교재는 미국에서 공교육의 대안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School of Tomorrow〉를 사용한다. 서부경남 지역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학생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 발걸음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배우고 지낼 독립된 공간이다.

문의: 02-3215-3434

신앙에세이



한은선 전도사
(여호수아공동체)

지난해 초, 내게 새롭게 맡겨 주신 양육그룹들과 사역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면 좋을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다.

“그들이 아침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양 떼를 먹여라’”(요 21:15).

양떼를 먹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내게 맡겨주신 당연한 사명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해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다짐으로 사역들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연하게 여겼던 대면 사역들이 갑작스레 중단되었다. 예배와 교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까지 해오던 사역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목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온라인 기도회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펼쳐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모습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니?”

나의 사명에 대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자, 어렸을 적 이와 같은 질문에 내가 처음 했던 답을 떠올려보았다. 그때는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꾼

세상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고귀한 꿈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상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게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밤낮으로 양떼를 쫓아다니며 양떼의 곁을 지키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잘했다 해주지 않는 곳에서 양떼를 위해 사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며, 멸시 당하던 목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내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자신과 같이 양떼를 섬기는 목자의 역할을 할 제자라는 마음을 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라’”(마 9:36~38).

예수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은 목자가 없는 것처럼 시달리고 방황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이며, 돌볼 목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양들을 보살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내게 세상을 바꿀 거창하고 고귀한 일은 아니어도 양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하신다.

아직도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갈 길이 멀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양떼를 섬기는 일은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치도 없다.”

“실로 항해에 부적합한 이 작은 선박을 바다 위에 띄우지만, 왕이신 예수의 주권 아래 특허를 받아 모든 지식의 항구에 영역주권의 깃발이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의 깃발을 모든 영역에 세우려고 한 것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역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국가, 교육, 학문, 예술, 기업 등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 속에 생물이 있고, 하늘에 조류가 있고, 인간이 있고, 각기 다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역 안에 고유한 주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권력분립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중요한 영역인데 영역주권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각 영역에 잘 나타날 수 있는 나라는 권력분립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영역주권을 침범한 정치지도자들은 심각한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속한 장로교 정치도 영역주권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 권한이 분산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영역의 주권들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정, 기업, 사회, 학교 등 여러 영역들이 각기 고유한 영역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어긋나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각 영역의 주권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의입니다. 공의의 목적으로만 국가에게 모든 영역 위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영역 안에서는 주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국가가 법을 제정하는데 가정 영역의 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가정의 기본 틀을 국가가 법으로 “제 3형이 존재한다. 분류

될 수 없는 성이 존재한다. 성은 각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고유한 제도를 국가가 법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이 가정에서 윤리와 도덕,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영역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목적은 가정과 학교와 기업과 여러 고유영역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국가가 법으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영역주권이론에 의하면 국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일 국가가 각 영역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였을 때 국가는 단지 공범자일 뿐이다. 주된 범인은 의무를 망각한 시민 자신이다. 죄와 감각적 쾌락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근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도덕적 능력,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고유한 영역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그 영역의 책임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영역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경고를 듣고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말하지 않을 수 없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셋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개인적

으로 그분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담대함과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복음은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함을 고백한 자들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방해와 핍박, 압력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것이며, 위로부터 부여주시는 신비로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만나는 가장 큰 유혹은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으로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가진 영역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고 국가의 영역주권을 침범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름으로 정치적 정당을 만들고, 교회 이름으로 국가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입니다. 교회에 주신 영역주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는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교회의 영역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주님의 평강이 그 어느때 보다 동역자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0명대를 넘어 지금은 매일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강조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지인 T형제와 리더 양육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T형제는 사역자로서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설교와 기도회 인도 등으로 영적리더십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T형제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T형제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도 속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형제의 조카 BK형제는 1년이 넘는 기간을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며칠 전에 가족의 품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정착했을 때 내리지도 못

하고 배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오랜 시간 가족들을 떠나 3급 항해사로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주일예배에도 참석해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참손인 T형제가 전하는 말씀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BK형제는 친척들에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 식 시간을 갖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될 텐데 이곳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T형제가 오랜 시간 기도해오던 가족복음화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주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몽골인 자매와 함께 공원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기 위

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원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코로나”라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두 명씩 앉아 있는 곳을 찾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몰랐던 영혼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나가는 개인전도에서 진리를 찾는 예비 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동역자님들이 계셔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동역자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체사라 선교사(중동A국)

주님만 바라보고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미디어 선교의
내일,
풍당에서
시작됩니다.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fondant

갈급한 성도들의 마음,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의 마음,
성도를 걱정하는 목자의 마음을 모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독교 영상 OTT서비스, 풍당**을 시작합니다.

* '풍당'의 뜻 : fondant(불어) '흘러넘치다, 빠져들다'



정식 서비스 오픈 2021년 초



순수복음 콘텐츠

이단이나 편향된 콘텐츠가 아닌
선별된 순수복음 콘텐츠로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 성장

영성진단지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콘텐츠 추천으로
신앙성장을 돕습니다.



한국 교회 나눔

작은 교회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예배와 교회 양육 커리큘럼을 통해
한국 교회와 함께합니다.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독교 영상 OTT서비스, **풍당**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